

사회

세계장애인탁구대회 참가 선수와 동행 해보니...

# 경사로·턱 ... 곳곳에 장애물 도움없는 경기장 입장 못해

## 1대 뿐인 엘리베이터 비좁아 줄지어 대기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굴러 경기장을 들어가기 불가능했어요. 보도 턱이나 출입구 경사로의 구조를 휠체어에 적합하게 배려해줬으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28일 오전 8시50분 광주시 서구 L호텔 앞.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25일~11월3일)'에 참가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온 외국선수 20여명이 경기장인 영주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 30~40° 각도에 이르는 경사로가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선수들은 군인들의 도움으로 경사로를 지났다.

장애인 관람객들도 불편하기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휠체어를 탄 관람객들은 전용 관람석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단 1대뿐인 엘리베이터 앞에 길게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1대뿐인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2대가 들어가면 딱 찰 정도로 비좁아 불편을 더했다.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라스트 슬라우 레브스키(32·슬

로바키아)선수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적고, 내부도 좁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 곳곳의 시설이 장애인선수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6개국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본보가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오전부터 동행한 결과, '대체로 나쁘지 않지만 경기장 및 주변 접근 시설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에서 온 한 선수는 “일반인들에게 맞춰진 시설물은 때때로 장애인들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며 “다른 대회도 아닌 장애인대회라는 측면에서 경기장을 조금만 수리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비용과 절차 등의 문제로 경기장 내부 보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9시가 되자 40인승 규모의 장애인 전용 특장차가 호텔 입구 앞에 도착했다. 보행이 가능한 선수들은 버스 앞문을 통해 버스에 올랐고, 휠체어를 탄 선수들은 자원봉사자와 버스기사의 도움을 받아 한 명씩 버스 중앙에서 내려온 리프트를 이용해 탑승했다.

선수들을 모두 태운 버스가 10여분을 달려 영주체육관에 도착했다. 이들은 호텔·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경기장 환경에 대체로 만족했다.

그러나 경차 선수들의 체육관 입장은 도움없이 불가능했다. 체육관 중앙 현관문으로부터 10여m 앞쪽에 있는 8cm 높이의 콘크리트 턱 때문. 휠체어를 탄 선수들은 자원봉사자인 육군 31사단 소속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턱을 넘어 체육관 현관문을 통과했다.

선수들이 체육관으로 들어간 뒤에 또 어려움은 계속됐다. 탁구대가 설치돼 있는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28일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위층으로 올라 가기 위해 단 1대뿐인 엘리베이터를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토바이 팔겠다” 속여 1700만원 가로채

### 서부경찰 20대 2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8일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오모(23)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7월

30일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1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17)군 등에게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곡성군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찰관 폭행 등 혐의 수사

곡성경찰은 28일 곡성군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투표 관리관과 몸싸움을 벌인 김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

시45분께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참관인 4명에게 캔커피를 제공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투표관리관 한모(59)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39) 경찰이 자신이 가져간 캔커피를 증거물로 수거하자 박 경찰의 손목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광주시장 경선 “이용섭 측 11억 제의” 허위 주장

# 호남일보 사주 법정구속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사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8일 6·2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호남일보 사주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선후보였던 이용섭 의원 측으로부터 ‘경선을 방해하는 여론조사를 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역이용해 이

의원 측이 회유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6·2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신문사가 벌인 경선후보 여론조사가 논란을 빚자, 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자재값 3억여원 '꿀꺽' 광주 모 신문사 대표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공사를 수주했다고 속여 철강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빼돌린 광주지역 모 신문사 대표 최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초께 모 철강 업체 사장 오모(48)씨에게 접근, 관공 공사를 수주했다고 속

여 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 곧바로 고물업자에게 전량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신문사 인수과정에서 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월 2~8월 지역 주재기자 18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직업안정법 위

/이종행기자 golee@

## 나원침 (8155) 김중두



## 부부싸움 중 흘린 가방 훔쳐

광주서부경찰은 28일 40대 주부가 부부싸움 중에 길거리에 떨어진 가방을 훔친 한모(2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앞에서 5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 현금 100만원 등이 든 가방(여·44)씨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개그맨 박성호 음주운전 입건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박성호(36)씨를 28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57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나 현장에서 3차래 음주 측정용 거부.

○박씨는 경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

www.geumssoojang.com

이런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빅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벽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 예의 |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 문의 |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을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